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놀이참여 매개효과-

이경주** · 도미향***

본 연구는 전국의 만 3~5세 자녀를 둔 아버지 542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놀이참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와 AMO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 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고, 상관관계분석, 확인적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 놀이참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감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놀이참여와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감능력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유아의 공감능력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놀이참여의 중요성과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놀이참여, 공감능력

논문투고일: 2022. 01. 21. 최종심사일: 2022. 03. 12. 게재확정일: 2022. 03. 19.

* 이 논문은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시립이편한세상평택용이1단지어린이집 원장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o, Mi-Hyang,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91, Daehak-Ro Seonghwan-eup, Choongnam, Korea, E-mail: domi@nsu.ac.kr

I. 서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물질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졌지만, 사회가 팽창하면서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에 비해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박성옥·김혜영·최영희·김연정·허혜리, 2016). 이때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정애, 2018).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능력이 공감능력이다(장혜림·정희정, 2021).

공감능력은 나와는 다른 타인의 경험으로 타인의 정서적 상태에 대해 이해 및 추론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대리적으로 느끼는 정서적인 반응을 의미한다(조한별, 2014). 공감은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 유년기를 거쳐 발달하는 능력이며(David, 2013), 주 양육자와의 상호관계로부터 발달한다(Ekstein, 1972).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의 공감능력 발달은 가정환경, 즉 부모-자녀 관계 경험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박미희·최미숙, 2018; 최민수·김수정, 2019).

이러한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변인을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은 부모코칭역량, 애정적 양육태도, 애착유형, 부모역할지능, 부모의 공감능력, 부모 의사소통능력, 언어통제유형의 요인(공귀숙, 2019; 이숙·류현강, 2014; 박선진, 2015; 송승희·장경은, 2015; 정대현·조명옥·곽연미, 2014; 최민수·김수정, 2019)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미양, 2016; 이숙·류현강, 2014)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아의 직접적인 환경이라 볼 수 있는 부모는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측면에서 중요하다.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수행을 위해 상황적 맥락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도 개인이 지각한 삶의 전반적 만족도인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양육과 발달에 있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정미현·이경주, 2020; Palkovitz, 2002). 아버지 삶의 만족도가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이 높을 경우, 아버지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아버지의 정서적 상태는 가정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조하영·박성연, 2013).

한편, 유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양육행동이란 아버지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방법으로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다(Ajzen & Fishbein, 1975). 유아기는 아버지와 상호작용이 활발한 시기이고 공감능력이 사회화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유아기부터 공감능력 발달을 돕는 아버지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아버지가 유아의 고통이나 슬픔을 무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유아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습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해 알아차리기에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 Belsky(1984)는 부모의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이며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순차적으로 유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시간 함께 놀이할 때 자녀의 놀이를 확장하거나 풍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서, 인지 등 전반적인 발달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2020; 이현지·정혜욱, 2016). 이처럼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버지 또한 놀이참여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유아의 공감능력 발달에 상호의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환경적 변인이 아버지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변인이 유아의 공감능력 발달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놀이참여가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김경은, 2011).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놀이참여를 매개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놀이참여 등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봄에 따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놀이참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놀이참여는 유아의 공감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에서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 놀이참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형성하여 유아의 공감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아버지 교육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및 놀이참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놀이참여와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요인(이민경, 2017)으로서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행복한 양육을 가능하게 한다(김민정·유효인, 2020). 부모의 긍정적이고 질 높은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며, 그렇지 못한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인생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서·행동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녀의 바른 성장과 배우자와의 사랑, 긍정적 인생관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남호진, 2015). 부모로서 자신이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는 요인을 파악하여 부모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질에 의해 결정되는 애착과 공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Mussen 과 Eisenberg(1977)는 유아기의 강한 애착이 타인에 관한 관심을 유발하여 이후 공감발달의 필요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공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유아는 자신을 돌보는 양육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잠재되었던 유아의 감정을 일깨워 점차 타인지향적인 공감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다(박선하, 2014).

아버지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이는 유아의 발달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Benson, 1993). 이처럼 아버지의 놀이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실태와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박하얀·배선영, 2018).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의 공감능력,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일상생활에서의 양육뿐 아니라 구조화된 놀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때로는 의도된 놀이로 계획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기분전환을 위해서 즉흥적으로 발생한다(전혜영·이희선, 2019). 이러한 놀이참여는 유아의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Ginsburg et al., 2007)으로 보고되고 있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놀이참여, 공감능력 간의 관계와 양육행동, 놀이참여,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하나의 경로에서 탐색한 연구는 찾기가 어려웠다. 아버지 대상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두고 어머니를 포함하여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이라는 변인을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놀이참여도가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김경은, 2011). 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놀이참여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놀이참여의 중요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놀이참여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정정옥·이형민, 2018).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놀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놀이참여의 매개적 영향력도 나타났다.

아버지 대상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자기조절능력, 놀이성,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정주·박형신, 2017; 문성희, 2019; 이슬기, 2021; 이현지·정혜옥, 2016),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인 놀이성이 놀이참여에 영향을 주고 놀이참여가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혜영·이희선, 2019).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매개변인으로 유아의 사회적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의 심리적 안

녕감,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매개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이 놀이참여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유아의 공감능력에 아버지의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밝혀보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놀이참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만 3~5세 자녀를 둔 아버지 5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는 278명(51.3%), 여자는 264명(48.7%)이었고, 만 3세는 114명(21.0%), 만 4세는 227명(41.9%), 만 5세는 201명(37.1%)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41-50세가 354명(65.3%)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가 167명(30.8%), 50세 이상 18명(3.3%)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경기도 169명(31.2%), 서울 122명(22.5%) 순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공감능력

유아의 공감능력 척도는 Auyeung, Wheelwright, Allison, Atkinson, Samarawickrema,

Baron-Cohe(2009)이 아동용 공감 척도(EQ-C: Children's version of the Empathy Quotient)로 개발한 것으로 고희갑 외(2015)가 번안, 수정한 유아용 공감 척도(EQ-YC)를 사용하였다.

<표 1> 유아 공감능력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의 예	문항 수	신뢰도
정서적 공감	1, 4, 5, 10, 11, 12, 13	5. 다른 사람이 마음 아파하면 같이 걱정하는 편이다.	7	.77
사회적 반응	3*, 7*, 9*, 14*, 15*	3. 다른 또래나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있다.	5	.87
인지적 공감	2*, 6*, 8	2. 벌레를 자르거나 곤충의 다리를 떼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3	.62
		전체	15	.83

*역채점 문항

2) 심리적 안녕감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Ryff(1989)가 개발하고 Ryff, Lee, Na(1993)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PWB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로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표 2> 아버지 심리적 안녕감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의 예	문항 수	신뢰도
자아수용	3, 8, 12*, 19, 24, 26*, 39, 42	8.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8	.80
긍정적 대인관계	4*, 9*, 13, 20*, 27*, 38, 46*	4.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7	.82
자율성	5, 10, 15, 21*, 29, 33*, 36*, 43	5.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8	.67
환경에 대한 통제력	1, 6*, 14, 16*, 25, 30, 40*, 44	14.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8	.75
삶의 목적	7*, 11*, 18*, 23*, 28, 32, 35	7.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7	.81
개인적 성장	2*, 17, 22*, 31, 34*, 37, 41*, 45*	16.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8	.73
		전체	46	.94

*역채점 문항

3)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는 미국 NICHD(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에서 양육행동척도(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Galperin, & Pecheux, 1996)로 개발한 것으로 김민정(2005)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표 3> 아버지 양육행동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의 예	문항 수	신뢰도
사회적 양육유형	1, 2, 4, 6, 7, 8, 15, 16, 17	7.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 받으며 시간을 보낸다.	9	.86
가르치는 양육유형	3, 9, 11, 12, 13	3. 나는 내 아이가 혼자 탐색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5	.65
한계설정 양육유형	5, 10, 14*	5. 나는 내 아이에게 규칙 지키기와 예의를 강조해서 가르친다.	3	.64
전체			17	.88

*역채점 문항

4) 놀이참여

아버지의 놀이참여 척도는 Stevenson, Thompson과 Rosch(1988)의 놀이유형과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 정도 단계를 참고로 하여 원희영(1998)이 제작한 부모의 놀이참여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은 구성놀이, 신체놀이, 교수놀이, 게임, 역할놀이, 기능놀이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2문항이다.

<표 4> 아버지의 놀이참여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의 예	문항수	신뢰도
구성놀이	1, 2, 3	1. 자녀가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할 때 (종이,나무퍼즐)	3	.72
신체놀이	4, 5, 6, 7	7. 자녀가 음악에 따라춤추는 놀이를 할 때	4	.64
교수놀이	8, 9, 10, 11	9. 자녀가 글자 읽기나 쓰기에 관심을 보일 때	4	.80
게임	12, 13, 14	14. 자녀가 숨바꼭질과 같은 숨기 놀이를 할 때	3	.67
역할놀이	15, 16, 17, 18	15. 자녀가 소꿉놀이를 하려고 할 때 (엄마,아빠 놀이)	4	.88
기능놀이	19, 20, 21, 22	22. 자녀가 비눗방울 놀이나 빨대불기 놀이를 할 때	4	.77
전체			22	.91

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21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 3~5세 자녀를 둔 아버지 600명이며, 설문지에 응답하기 전 연구내용과 추후 자료 활용 등에 대한 동의, 중도 포기에 대한 자유의지 등이 포함된 연구동의서를 참여자 모두에게 받은 후 실시하였다. 단, 코로나 19 이슈로 직접 대면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서베이 업체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중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54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놀이참여 및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r=.21, p<.001 \sim r=.39, p<.001$),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r=.17, p<.001 \sim r=.45, p<.001$),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놀이참여 간의 상관관계($r=.17, p<.001 \sim r=.35, p<.001$),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 간의 상관관계($r=.17, p<.001 \sim r=.51, p<.001$),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r=.16, p<.001 \sim r=.32, p<.001$)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 분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놀이참여						유아의 공감능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자아수용	1																	
2.긍정적 대인관계	.59***	1																
3.자율성	.57***	.46***	1															
4.환경에 대한 통제력	.74***	.62***	.57***	1														
5.삶의 목적	.63***	.64***	.54***	.69***	1													
6.개인적 성장	.51***	.57***	.43***	.54***	.74***	1												
7.사회적 양육유형	.41***	.40***	.37***	.41***	.43***	.37***	1											
8.가르치는 양육유형	.35***	.27***	.31***	.31***	.34***	.31***	.69***	1										
9.한계설정 양육유형	.27***	.36***	.28***	.33***	.38***	.27***	.48***	.38***	1									
10.구성놀이	.30***	.29***	.17***	.23***	.27***	.30***	.38***	.26***	.23***	1								
11.신체놀이	.30***	.33***	.19***	.27***	.32***	.31***	.46***	.30***	.27***	.35***	1							
12.교수놀이	.23***	.28***	.17***	.20***	.26***	.23***	.51***	.33***	.31***	.43***	.40***	1						
13.게임	.28***	.35***	.19***	.27***	.34***	.33***	.51***	.35***	.29***	.42***	.63***	.51***	1					
14.역할놀이	.27***	.26***	.20***	.22***	.27***	.21***	.46***	.35***	.17***	.42***	.44***	.38***	.50***	1				
15.기능놀이	.30***	.35***	.24***	.28***	.33***	.32***	.50***	.36***	.34***	.43***	.60***	.47***	.62***	.45***	1			
16.정서적 공감	.32***	.38***	.26***	.31***	.33***	.29***	.45***	.34***	.27***	.27***	.29***	.29***	.29***	.24***	.32***	1		
17.사회적 반응	.26***	.39***	.30***	.36***	.37***	.30***	.32***	.17***	.25***	.24***	.23***	.28***	.31***	.20***	.29***	.33***	1	
18.인지적 공감	.21***	.31***	.24***	.29***	.33***	.24***	.32***	.18***	.27***	.16***	.21***	.24***	.27***	.18***	.26***	.43***	.55***	1
평균	3.25	3.36	3.13	3.40	3.50	3.29	3.78	3.66	3.91	3.06	3.32	3.26	3.43	2.97	3.50	3.58	3.74	3.72
표준편차	.51	.60	.43	.46	.55	.48	.47	.48	.58	.56	.44	.53	.49	.60	.47	.46	.65	.54
왜도	-.48	.16	-.15	.28	.19	.38	-.04	-.21	-.24	-.14	-.54	-.43	-.62	-.12	-.82	-.14	-.29	-.31
첨도	1.65	-.17	.69	.13	-.32	-.07	-.06	.49	-.25	-.14	-.01	-.22	-.24	-.06	.14	.57	-.43	-.02

*** $p < .001$

2.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² 통계량,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신뢰구간이 제시되는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 등 적합도 지수를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chi^2=446.711$ ($df=129$, $p<.001$), SRMR=.050, TLI=.918, CFI=.931, RMSEA(90%CI)=.067(.061~.074) 등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 놀이참여, 유아의 공감능력 측정변인들에서 이

론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음 오차분산(heywood case)등이 나타나 측정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을 통해 잠재변인들의 집중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 값을 검토하였다.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 놀이참여, 유아의 공감능력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모두 0.5이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 < .001$), 개념신뢰도는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97)과 양육행동(.93), 놀이참여(.95), 유아의 공감능력(.89) 등 잠재변인 모두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 값 역시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85)과 양육행동(.82), 놀이참여(.77), 유아의 공감능력(.73)등의 잠재변인 모두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표 6>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 분	비표준화 요인 부하량	표준화 요인 부하량	표준 오차	t	개념 신뢰도 (CR)	평균 분산 추출 (AVE)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 자아수용	1.00	.79	-	-	.97	.85
	→ 긍정적 대인관계	1.12	.76	.06	18.73***		
	→ 자율성	.70	.65	.05	15.69***		
	→ 환경에 대한 통제력	.95	.83	.05	21.00***		
	→ 삶의 목적	1.17	.86	.05	21.89***		
	→ 개인적 성장	.88	.74	.05	18.17***		
아버지의 양육행동	→ 사회적 양육유형	1.00	.95	-	-	.93	.82
	→ 가르치는 양육유형	.77	.72	.04	17.91***		
	→ 한계설정 양육유형	.68	.52	.06	12.31***		
아버지의 놀이참여	→ 구성놀이	1.00	.56	-	-	.95	.77
	→ 신체놀이	1.03	.73	.08	12.21***		
	→ 교수놀이	1.09	.64	.10	11.26***		
	→ 게임놀이	1.26	.81	.10	12.91***		
	→ 역할놀이	1.19	.62	.11	11.06***		
	→ 기능놀이	1.16	.77	.09	12.63***		
유아의 공감능력	→ 정서적 공감	1.00	.59	-	-	.89	.73
	→ 사회적 반응	1.66	.70	.15	10.95***		
	→ 인지적 공감	1.43	.72	.13	11.07***		

$\chi^2=446.711(df=129, p<.001)$, SRMR=.050, TLI=.918, CFI=.931, RMSEA(90%CI)=.067(.061~.074)

*** $p < .001$

한편, 잠재변인들 사이의 판별타당성을 살펴보면, 잠재변인들 간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70)의 제곱(.49)보다 잠재변인들의 평균분산 추출 값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인들의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표 7>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 분	상관계수	상관계수의 제곱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 아버지의 양육행동	.55***	.30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 아버지의 놀이참여	.50***	.25
아버지의 양육행동 ↔ 아버지의 놀이참여	.70***	.49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 유아의 공감능력	.58***	.34
아버지의 양육행동 ↔ 유아의 공감능력	.55***	.30
아버지의 놀이참여 ↔ 유아의 공감능력	.53***	.28

*** $p < .001$

3. 구조모형분석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놀이참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의 추정방법은 측정변인들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의 외생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59로 높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앞서 살펴본 측정모형과 동일한 공분산행렬을 가진 동치모형(equivalent model)이므로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chi^2=446.711(df=129, p<.001)$, SRMR=.050, TLI=.918, CFI=.931, RMSEA(90%CI)=.067(.061~.074) 등으로 동일한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보여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df	p	SRMR	TLI	CFI	RMSEA(90%CI)
446.711	129	.000	.050	.918	.931	.067(.061 ~ .074)

연구모형의 검증결과와 경로계수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은 놀이참여를 51%정도 설명하였고,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 놀이참여는 유아의 공감능력을 43%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 아버지의 놀이참여	.13	.16	.04	3.23**
아버지의 양육행동 → 아버지의 놀이참여	.43	.61	.05	9.10***
아버지의 놀이참여 → 유아의 공감능력	.18	.21	.07	2.81**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 유아의 공감능력	.24	.36	.04	5.79***
아버지의 양육행동 → 유아의 공감능력	.12	.20	.05	2.62**

놀이참여의 $R^2=.51$, 유아의 공감능력의 $R^2=.43$

** $p<.01$, *** $p<.001$

4. 아버지의 심리적안녕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감능력 관계에서 놀이 참여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간접효과에 대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은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수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95% 신뢰구간(CI)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매개효과 검증(부트스트랩)과 효과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CI)	총효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 아버지의 놀이참여 → 유아의 공감능력	.36***	.03**(.01~.07)	.39**
아버지의 양육행동 → 아버지의 놀이참여 → 유아의 공감능력	.20**	.13**(.05~.23)	.33**

** $p<.01$, *** $p<.001$, 부트스트랩 표집 2,000번

먼저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의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 놀이참여 → 유아의 공감능력의 간접효과(표준화 경로계수 =.03, CI: .01~.07, $p<.01$)와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 놀이참여 → 유아의 공감능력의 간접효과(표준화 경로계수 =.13 CI: .05~.23, $p<.01$)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감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이 높으면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적극적으로 증가하고 유아의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유아와의 의사소통 기능을 가진 놀이참여가 매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갖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를 매개로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경은, 20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정정옥·이형민, 2018),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놀이참여를 매개로 유아의 놀이에 대한 사회·정서 측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김정주·박형신, 2017)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양육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법을 몰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힘들다는 사례를 보고한

연구(김용익·김낙홍, 2015)를 미루어 살펴볼 때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매개변수로서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아버지가 일정 시간 이상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면 유아가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규칙, 다양한 감정을 배우고 느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바람직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익히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공감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아버지가 직장과 일에 쫓겨 유아의 놀이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사회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핵가족화 등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가정에서의 양육방식이 아닌 어린이집 등에서의 전문적인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유아들이 어린이집 등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정에서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다시 유아에게 가정은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아버지의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아버지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보다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되었다(백선희,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변인과 유아의 공감능력과의 관련성을 직접 살펴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 간접적인 영향력까지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가 자녀와의 놀이를 존중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희갑·심숙영·임선아(2015). 유아용 공감척도(EQ-YC) 타당화 예비 연구. *아동교육*, 24(1), 59-80.
- 공귀숙(201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관계에서 유아 공감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17
-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5(2), 19-39.
- 김민정(2005). 영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과 이상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유효인(2020). 아버지의 행복감이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45-65.
- 김용익·김낙홍(2015). 아빠학교의 아버지들이 양육참여를 통해 겪은 삶의 경험 탐색. *육아지원연구*, 10(2), 191-215.
- 김정주·박형신(2017).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놀이몰입,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17(3), 29-48.
- 김진희(2020). 유아의 놀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놀이참여가 유아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1), 49-64.
- 남호진(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희(2019).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놀이참여유형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희·최미숙(2018). 유아의 공감능력과 리더십이 친사회적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7(4), 255-273.
- 박선진(2015).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하(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욱·김혜영·최영희·김연정·허혜리(2016). *공감과 소통*. 서울: 학지사
- 박하얀·배선영(2018).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6), 123-141.
- 백선희(2020).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송승희·장경은(2015). 유아의 정서적 공감능력, 어머니의 공감능력 및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6(3), 39-75.

- 원희영(1998).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아동연구*, 2, 139-141.
- 이미양(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경(2017).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류현강(201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8(3), 1-16.
- 이숙재(1984). 유아의 상상놀이와 제변인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슬기(2021).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놀이참여도의 성별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애(2018).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유아 친사회적행동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연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4), 5-23.
- 이현지·정혜옥(2016). 부모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1(4), 77-95.
- 장혜림·정희정(2021).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30(1), 185-211.
- 전혜영·이희선(2019).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아버지의 놀이참여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2), 103-123.
- 정대현·조명옥·곽연미(2014). 부모코칭역량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공감능력 간의 상관.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2), 83-100.
- 정미현·이경주(2020). 양육효능감 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부모교육연구*, 17(3), 19-37.
- 정정옥·이형민(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놀이참여의 매개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9(1), 121-138.
- 조하영·박선영(2013).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3), 59-74.
- 조한별(2014). 성별과 공감 경향에 따른 편도체의 구조적 특성규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민수·김수정(2019). 유아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분석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1), 151-177.
- Ajzen, I., & Fishbein, M. (1975). A Bayesian analysis of attribution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82(2), 261 - 277.
- Auyeung, B., Wheelwright, S., Allison, C., Atkinson, M., Samarawickrema, N., & Baron-Cohen, S. (2009). The children's empathy quotient and systemizing quotient: Sex differences in typical development and in autism spectrum condi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11), 1509.
- Benson, J. (1993). Season of birth and onset of locomoti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6(1), 69-81.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Haynes, O. M., Painter, K., Galperin, C., &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347-367.
- David, H. (2013). Empa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Ekstein, R. (1972). Psychoanalysis and Education for The Facilitation of Positive Human Qualities. *Journal of Social Issues*, 28(3), 71-85.
- Ginsburg, K. R., Shifrin, D. L., Broughton, D. D., Dreyer, B. P., Milteer, R. M., Mulligan, D. A.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Pediatrics*, 119(1), 182-191.
- Museen, P., & Eisenberg, N. (1977). Root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Oxford, England: W. H. Freeman. ix 212 pp.
- Palkovitz, R. (2002). *Involved fathering and men's adult development: Provisional balanc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Lee, Y. H., & Na, K. C. (1993). Through the lens of culture: Psychological well-being at midlif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New Orleans, LA.
- Stevenson, N. B., Leavit, L. A., Thompson, R. H., & Roach, N. A. (1988). A social relations model analysis of parent and child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101 - 108

Abstract

The Impact of the Fa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Empathy – The Mediated Effect of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

Lee, Gyeong-Ju* · Do, Mi-Hyang**

This study investigates 542 fathers with children aged 3 to 5 across the South Korea and examines the effects of the fa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behavior, and play participation on children's empath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25.0 in order to calculate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coefficient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bootstrapp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confirm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behavior, play participation, and children's empathy, and revealing that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acts as a parameter in the fa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empathy. Through this, the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help children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empathy, to develop their fa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behavior and participation in play, and to develop father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behavior, play participation, empathy.

* Director, E-Pyeonhansesang Pyeongtaek Yongi 1-complex Childcare Center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